

이재도·마레이·서민수 39점 합작 짜릿한 V쇼

KCC에 69-62 값진 1승...중위권 도약 발판 마련

LG, 2쿼터 몰아치기 득점 기선제압
주전들 힘 비추는 KCC 4쿼터 맹추격
마레이·서민수·이재도 위기마다 득점



창원 LG가 제2의 연고지에서 강한 전주 KCC를 제압하고, 중위권 도약을 위한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LG는 15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KCC와 원정경기에서 아셈 마레이(15점·12리바운드), 이재도(14점·6어시스트), 서민수(10점·3리바운드)를 앞세워 69-62로 이겼다. 시즌 8승째(14패)를 챙긴 LG는 9위를 유지했지만 두팀게 형성된 중위권에 한 발 더 다가섰다. 2연승을 마감한 KCC(10승12패)는 6위로 내려섰다.

경기 시작에 앞서 양 팀 사령탑들은 주전들의 체력을 걱정하며 멤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뜻을 밝혔다. KCC 전장진 감독은 "최근 경기 일정이 타이트했다. 아제 훈련에서 선수들의 몸이 무겁더라. 멤버를 고루 활용할 계획이다. 공격보다 수비에 더 신경을 쓰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LG 조성원 감독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팀 내 1음선 외국인선수 마레이 대신 압둘 말릭 아부를 베스트5로 내세웠다. 초반에는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 아끼고, 승부처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였다. 조 감독이 주목한 부분은 공격이었다. 수비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공격은 다소 기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선수들에게 더 자신 있게 슛을 시도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얘기했다.

양쪽 벤치의 선택 타인지 1쿼터는 맥이 빠졌다. 두 팀 모두 슛 성공률이 썩 좋지 않았다. 하지만 1쿼터 막판 집중력이 살아난 LG가 17-11로 리드를 가져갔다. 이어진 2쿼터 LG가 코트 분위기를 장악했다. LG는 22-17로 앞선 2쿼터 종료 4분여 전부터 3분 동안 3점슛 1개 포함 10점을 몰아치며 32-17, 15점차로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했다. 3쿼터 흐름도 비슷했다. KCC가 추격에 나섰지만 LG는 이관희(6점), 이재도, 마레이 삼총사가 19점을 합작한 덕분에 55-42, 13점차를 지켰다.

주전들의 힘을 최대한 비추는 KCC는 4쿼터 시작과 함께 달라졌다. 2-3 지역방어에 맨투맨을 가미한 수비를 통해 LG 공격을 봉쇄하면서 맹추격에 나섰다. 공격에서는 프로 2년차 슈터 이근휘(13점)가 3점슛 1개 포함 5점을 책임지면서 답답했던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KCC는 4쿼터 시작 4분여 만에 51-57로 격차를 좁혔고,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는 57-59로 LG를 더 몰아붙였다.

이번 시즌 KCC전 2경기를 모두 잘 하고도 마무리에 실패해 2연패를 당한 LG는 또 악몽이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마레이가 KCC 라건아(15점·13리바운드)를 상대로 끝밀 2득점을 해내 한숨을 돌렸다. 이어 군산고 출신 서민수가 3점슛을 림에 적중시켜 64-57로 다시 도망갔다. 경기 종료 57초전에는 이재도가 승리를 굳히는 3점포를 가동해 KCC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군산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 LG 이재도(왼쪽)가 15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시즌 프로농구 KCC전에서 상대 마크를 피해 슛을 쏘고 있다. 이재도는 이날 14점·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군산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코로나19 확산에 연말 연예계 비상등



영화 '비상선언'의 제작진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자 내년 1월 초로 예정했던 개봉 일정을 연기했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쇼박스

기대작 '비상선언' 결국 개봉 연기 유재석 감염...SBS 연예대상 불참

방역 강화 예고...아이돌그룹들 연말콘서트도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연말 방송연예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이 흥행 가도의 '녹색불'을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검토하면서 극장가가 또 다시 위기감에 빠졌다. 방송가도 연말 대형무대 개최 방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비상선언' 개봉 연기...극장도 영업제한?

15일 75만여장의 예매율로 흥행세를 예고하며 개봉한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에 이어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 '매트릭스:리저렉션', '킹메이커', '해피 뉴 이어' 등 기대작이 연말 극장가에 관객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극장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을 받은 극장가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정상영업해왔다. 그러나 14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최대치이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 극장 관계자는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 흥행이 영화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연말연시 극장 분위기가 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강호·전도연·이병헌 등이 주연한 기대작 '비상선언'의 제작진은 내년 1월로 예정했던 개봉 일정을 15일 결국 연기했다. 29일 개봉작 '킹메이커'의 제작진도 16일과 17일로 예정한 주연 설정구·이선균의 인터뷰 일정을 미뤘다.

●연말 대형무대 열 수 있나?

유재석, 유희열, 신현빈 등 연예인들이 감염되면서 연말 방송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유재석의 경우 18일 SBS '연예대상'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를 비롯해 각 지상파 방송사가 '연예대상'과 음악 관련 대형무대를 준비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심각해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처럼 일부 출연자만 참여하는 소규모 방식 말고는 딱히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그룹 트와이스를 비롯해 세븐틴·NCT 127·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연말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는 가요계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5000명까지 관객 입장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방역 조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기획사처럼 '랜선' 공연을 꿈꿀 수 없는 대다수 중소기획사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쇼핑 LIVE



1879

NAVER '1879쇼핑' 검색

